

#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함

(금요일—오전 1부 집회)

## 메시지 1

###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

성경: 슥 6:11-15, 창 1:26, 뵤전 2:5, 9, 히 4:16, 계 22:1

I. 위로와 위안과 격려를 주는 스가라서 안의 이상들은 유다 총독 슥바벨과 연결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이 씌워진 것으로 확정된다. 유다 총독 슥바벨은 다윗의 순으로서 왕의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슥 6:11-15.

- A. 그리스도는 여호와와 순이신데,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가리킨다. ‘여호와와 순’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신성 안에서 인성 안으로 뻗어 내시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육체 되심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발전이 되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 우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증가와 확장을 위한 것이다 — 사 4:2, 7:14, 마 1:22-23.
- B. 그리스도는 또한 (스룩바벨로 예표되는) 다윗의 순이신데, 이것은 그분의 인성과 왕으로서의 신실함을 가리킨다 — 슥 3:8, 렘 23:5.
- C. 스가라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여호수아와 슥바벨, 이 두 사람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두 직분, 곧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시다(비교 고전 3:12, 17, 고후 6:16).
- D.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슥 6:13하). ‘이 둘 사이’라는 말은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 사이를 의미한다(비교 슥 1:1, 스 5:1).

II. 히브리서의 초점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이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관한 주된 요점은 그분께서 뵤기세력으로 예표되신 것처럼 대제사장과 왕(의의 왕과 평안의 왕) 모두 이시라는 것이다 — 히 5:10, 7:1-3, 28, 8:1-2.

- A. 그리스도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왕이실 뿐 아니라 뵤기세력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 히 2:17, 4:14, 5:6, 10, 6:20, 8:1, 9:11, 시 110:1-4.
  - 1.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수행하시는 하늘에서의 사역은 여호와와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그분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모두 포함한다 — 히 7:1-2, 슥 6:13, 15, 고전 3:16-17.
  - 2.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일들을 관리하는 지휘봉을 가지고 계시며,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돌보고 계신다 — 히 4:14-16, 7:25-26, 9:24, 행 5:31, 롬 8:34, 계 1:12-13.
- B. 뵤기세력의 계통에 따른,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으로서 우리 안에 넣는 사역을 수행하신다 — 히 7:1-2, 8:1-2, 창 14:18-20.
  - 1. 그리스도는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에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아론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셨다 — 히 9:14, 26.

2. 그 후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히 5:6, 10).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으시고,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신(마 26:26-28),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우리에게 넣어 주는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양육하고 신선하게 하고 부축하고 위로하고 강화하심으로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시려는 것이다(히 7:25).
- C. 그리스도의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항해 싸워 의와 평안을 가져옴으로,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매일의 공급과 누림으로 우리 안에 넣어 주는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한 것이다 — 히 7:1-2, 창 14:18-20.
- D. 그리스도의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죽음의 모든 부산물, 곧 공허와 탄식과 한숨과 썩음과 묵임과 부패와 속박과 같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그분의 생명 안에서 철저히 구원하여, 영광스럽게 됨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의 신성한 제사장 직분에는 죽음이 전혀 없고 오직 생명만 있다 — 히 7:25, 28, 롬 5:10, 8:19, 21, 23, 30.

### III.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위한 것이다. 제사장 직분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고, 왕의 직분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게 하여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성취한다.

- A. 사람의 창조에는 두 가지 주된 방면이 있는데, 바로 형상과 통치권이다(창 1:26). 형상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이고, 통치권은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도록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다.
- B.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들은 주님을 누림으로, 주님의 표현과 나타남과 처소와 거처(그분의 거룩한 제사장 체제인 그분의 영적인 집)가 된다 — 벰전 2:5.
1. ‘형상’의 노선은 제사장 직분의 노선인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과하여 흐르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 안에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됨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 고후 3:18, 롬 8:28-29.
- C. 왕의 직분은 주님의 권위, 곧 주님의 통치권을 위한 것이다. 왕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한다 — 마 28:19-20, 롬 16:20.
1. ‘통치권’의 노선은 왕의 직분의 노선인데, 이것은 왕이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하나님에게서 권위를 받기 때문이다.
  2. 왕의 직분은 (넘치는 은혜와, 은혜가 내적으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에 의해) 사탄과 죄와 죽음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다 — 롬 5:17, 21.
- D.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성취된 구속은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여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였다’ — 계 1:5하-6상.
- E.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이들은 한 면으로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까이할 것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왕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 계 2:26-27, 20:4, 6.
- F. 패배한 믿는 이들은 이 보상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처리를 받은 후에, 패배했던 이 믿는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제사장 직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의 직분 안에서 하나님을 대표함으로 이 보상의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 계 22:3, 5.

1.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때, 거룩한 성은 벽옥과 같다(계 21:11, 18상). 벽옥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같기 때문이다(4:3). 거룩한 성 안에는 생명수, 곧 생명의 영께서 흐르시어, 이 성을 하나님으로 채우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표현이 완전히 실현된다.
2. 그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 된 사람들은 영원토록 왕들로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것이다 — 계 22:5.

**IV.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보좌와 생명수의 강은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 모두이시라는 것을 말해 준다.**

- A. 새 예루살렘의 그림에 따르면, 보좌의 권위와 생명의 교통, 곧 생명의 흐름(계 22:1)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스가랴서 6장 12, 13절과 일치하는데,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주 예수님의 예표들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안에서 합쳐지는 것에 대해 말한다.
  1. 생명수의 강, 곧 생명의 흐름은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잠기게 하는 신성한 교통이며,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표현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 체계를 위한 것이다 — 벰전 2:5.
  2.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머리의 권위이며, 하나님의 통치권 곧 하나님의 왕국을 가진, 왕인 제사장 체계를 위한 것이다 — 벰전 2:9.
- B.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며,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들로서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흘러가시도록 허락해 드린다(요 7:37-39상). 보좌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으로 흐르고 우리로부터 흘러 나가는 생명수의 흐름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유일한 길이다.
- C. 히브리서에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을 지성소 안으로, 곧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이끄신다(히 2:17, 3:1, 4:14, 5:6, 7:1). 마태복음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 가져오는 분이시다(마 1:1, 23, 2:6).
  1. 히브리서는 성의 건축에 대해 말하는 데 비해(히 11:9-10, 16, 12:22), 마태복음은 교회의 건축에 대해 말한다(마 16:18). 교회의 건축과 성의 건축은 동일한 것이다.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제사장과 왕 모두이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제사장 직분의 교통과 왕의 직분의 권위가 있으며,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있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교통을 흘러 보내시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해 우리를 보좌의 권위 아래로 이끄신다.
- D.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왕들인 제사장 체계’라는 것을 제시한다. ‘왕들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왕(보좌)의 위치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사장 체계’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의 교통(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E.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왕인 제사장(벰전 2:9), 곧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의 흐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 모두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 대해 갖고 계신 의도는 그들을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게 하는 것이다(출 19:4, 6, 계 5:10).

**V. 히브리서 4장 16절에 따르면, 제사장으로서는 사역하는 길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단순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 A.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한다.
- B.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만짐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접촉할 때, 우리는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흐르시고, 우리를 통해 흐르시며,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한다.
- C. 생명의 영의 이러한 공급, 곧 이러한 흐름이 때맞추어 얻는 도움이고, 이 도움은 하나님의 공호와 은혜이다. 공호와 은혜는 우리를 통하여 흐르시고 우리가 얻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 D. 때맞추어 얻는 도움은 살아 계신 하나님 곧 흐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흐르시어, 우리를 신선하게 하고 적시며 공급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히 10:19-20)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보좌를 접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흐르시어 우리를 신선하게 하고 적시시며,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벧전 1:8).
- E. 믿는 이들에게 이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지만,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권위의 보좌이다. 은혜의 보좌는 제사장 직분과 관련되고, 권위의 보좌는 왕의 직분과 관련된다.
  - 1. 하나님의 보좌에서 은혜를 위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계 22:1), 심판을 위해 불의 강이 흘러나온다(단 7:9-10).
  - 2. 생명수의 강의 흐름은 물의 성인 새 예루살렘을 산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의 강은 불 못으로 흘러 들어간다.
  - 3.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만지고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공호와 은혜를 받아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는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합당하지 않은 상황들을 심판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권위의 보좌를 만질 수 있다.
- F.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소, 곧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감으로 은혜의 보좌를 만지고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 흐르도록 허락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이끌 것이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 안에서 건축되게 하여, 그분의 거처, 그분의 영적인 집, 그분의 거룩하고도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 체계가 되게 할 것이다 — 벧전 2:5, 9.

## 사역의 밑받침에서 발췌

### 거룩한 성의 내용 — 보좌와 생명수의 강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주요 내용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거룩한 성의 모습을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이 성의 중심은 바로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이다. 이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성 전체에 흐른다(계 22:1). 이 생명수의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이 강은 성 안에 있는 유일한 길 가운데로 흐른다(2절). 비록 21장과 22장에서 많은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주된 내용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 두 가지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명나무가 이 흐름에 따라 나온 것이고, 길 또한 이 흐름에 따라 나온 것이다(22:1-2). 심지어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어린양이 등이신 것(21:23)도 이 생명수의 강의 흐름에 달려 있다.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없다면 빛의 비춤도 없다.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성의 성전이신 것도 이 보좌가 있기 때문이다(22절).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성의 성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임재를 가리킨다. 그러므

로 하나님과 어린양의 임재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 달려 있다. 만일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없다면, 하나님과 어린양의 임재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와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다.

### 보좌와 생명수는 권위와 교통을 의미함

보좌와 생명수의 흐름은 바로 권위와 교통의 이야기이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는 바로 권위이고, 생명수의 흐름은 바로 생명의 교통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어린양이시다(요 1:36). 그분은 또한 생명이시다(요 11:25). 새 예루살렘 성의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신 후에 그분 자신의 생명을 해방하신 사실을 본다. 이 그림은 어린양으로 시작하여 생명으로 끝을 맺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것은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흘려 보내시기 위한 것임을 말해 준다(요 10:10). 이 그림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매우 깊으며,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일들을, 의미를 함축한 표징들과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여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얻고, 그분 자신이 사람들과 연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연합이 성취되는 길은,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린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 자신을 해방하심으로 사람들이 그분을 얻고 그분께서 사람의 생명이 되심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린양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이시다.

요한의 기록은 복음서이든 요한계시록이든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두 방면에 대하여 보여 준다. 요한의 복음서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자 생명이심을 말하고, 또 그분께서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한다(요 1:29, 10:10). 그는 또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7:37-38)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 그는 또한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주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19:34)을 기록했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물은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양이 되심으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사람들 속으로 흘려 보내시어 흐르게 하셨는지를 한 폭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또 여러 차례 생명수의 강과 어린양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했다(계 7:17, 21:6, 22:1).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어린양이 되시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으며, 어떻게 생명을 해방하시어 사람들 속으로 흘려 들어가셨는지를 말해 주는 부분들이다. 이것이 바로 교통의 방면이다.

### 보좌와 생명수의 협력

요한계시록의 이 그림을 보면 생명수의 강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바로 이 생명의 교통이 끊임없이 보좌의 권위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어디든지 강이 흐르는 곳에는 보좌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두 가지 주요 성분은 바로 권위와 교통으로서 양자는 함께 협력한다. 권위의 집행은 바로 생명의 교통을 통해 성의 각 부분으로

흘러가며, 그 결과 성 전체가 이 교통 안에 있게 되고 또 권위 아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성 안에서는 한 면으로 보좌의 권위가 성의 중심이고, 다른 한 면으로 생명수의 강의 교통이 성 전체를 통과한다. 이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그림을 보듯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통해 보좌의 권위가 성 전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권위가 있을 뿐 아니라 교통도 있는데, 교통이 권위와 협력하고 권위도 교통과 섞인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이 다 이 교통과 권위의 협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 이 성 안의 마실 물이 교통과 권위의 협력과 관련되어 있고, 성 안의 음식인 생명나무의 열매도 또한 교통과 권위의 협력과 관련되어 있다. 성 안의 길조차도 이 교통과 권위의 협력과 관련되어 있다. 마시는 것, 먹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다 이 교통과 권위의 협력과 관련되어 있다. 바꾸어 말해서, 교통과 권위의 협력을 빼 버린다면 성 안에는 음식도, 마실 물도, 다닐 길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양식과 음료, 그리고 영적인 길과 하나님의 임재가 다 교통과 권위의 협력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가 교통과 권위의 협력으로 가득하다면, 그곳의 교회는 생수로 가득하고, 양식으로 가득하며, 또 하나님의 길로 가득할 것이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있을 뿐 아니라, 행할 길도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것이다. 만일 교통과 권위의 협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성전이 없을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원칙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등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는 것도 이 교통과 권위의 협력에 달려 있다. 이 협력을 상실하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과 등이신 그리스도가 없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보좌와 생명수의 강에 달려 있다. 보좌와 생명수의 강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있게 된다.

### 보좌와 생명수는 금과 진주와 보석을 산출함

이 성은 순금이고, 문은 진주이며, 성벽은 보석이다. 이 성에 세 종류의 보석이 있는 것도(계 21:18-21) 이 성 안에 권위를 동반한 생명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금과 진주와 보석이 산출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창세기 2장에서 금과 진주와 보석이 강의 흐름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10-12절). 그러므로 생명수의 흐름이 없다면 금과 진주와 보석도 없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고 말하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강의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네 줄기가 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16절과 17절에 와서는 다시 돌아와서 동산 가운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삼입된 단락으로서 강의 흐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 함축된 의미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즉시 이 생명이 사람 안에서 흐르기 시작하며, 그 흐름의 결과가 금과 진주와 보석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금과 진주와 보석이 가득하기를 바라다면 반드시 먼저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지방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

지 않거나 혹은 흐르지 못하게 막혀 있다면, 그곳의 교회에서 금과 진주와 보석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 종류의 진귀한 재료는 모두 생명의 흐름 가운데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을 주의하고자 한다면, 이 생명의 흐름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어린양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여 곳곳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린양에 대하여 말할 때, 그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셨는지,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는지, 그리고 그분의 이 생명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생명의 흐름이 교회 안에서 흘러 보좌의 권위와 생명의 교통을 각 지체에게로 흘러 보내며, 그 결과로 교회 안에 권위와 생명의 교통이 가득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 듣기 어렵다. 교회 안에 반드시 이러한 권위, 곧 보좌의 권위를 가져오는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만, 건축을 위해 필요한 금과 진주와 보석을 산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것의 최종 목적이다.

### **보좌와 생명수는 주님께서 왕과 제사장의 두 직분을 가지셨음을 말함**

요한계시록 22장은 한 폭의 그림으로서, 구약의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건축되는지를 묘사한다.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 끝맺는데, 이 보좌는 또한 성경 전체의 중심이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은 바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안에서 그 영으로 해방되시어, 구원받은 사람들 안으로 생명으로서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 이시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 안에서 생명과 길이시며, 또 그들 안에서 실재 곧 진리이신데, 이것은 마치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생명이 그리스도이고, 길도 그리스도이며, 실재도 그리스도인 것과 같다. 이 모든 것은 새 예루살렘의 중심인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 길과 실재가 되실 때, 하나님의 권위 곧 보좌의 권위 또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가져온다. 보좌와 생명수는 다 그리스도께서 한 면에서는 왕이시고, 한 면에서는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분께서 생명과 길과 실재로 오셔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한 면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갖게 하시고 다른 한 면에서는 서로 섞이게 하신다. 이것은 제사장 이신 그분의 일이다. 동시에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로 하나님의 보좌의 권위를 가져오시는데, 이것은 왕이신 그분의 일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교통과 보좌의 권위는 다 주 예수님께 있다. 바꾸어 말해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다 주님께 있다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그림에 따르면, 보좌의 권위와 생명의 교통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스가랴서 6장 12절과 13절에 일치한다. 이 구절들은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주 예수님의 예표인 여호수아 안에서 모아지며, 이렇게 모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 준다.

신약에서 특별하게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이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과 길과 실재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사람들을 지성소, 곧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이끄는지를 보여 준다(2:17, 3:1, 4:14, 5:6,

7:1). 또 신약에서 특별하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을 사람과 연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 가져오셨음을 보여 준다(1:1, 23, 2:6). 기이한 것은 히브리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만, 이 두 권이 다 건축을 언급한다는 것이다. 히브리서에는 성의 건축이 있고(11:9-10, 16, 12:22), 마태복음에는 교회의 건축이 있다(16:18). 사실상 성의 건축과 교회의 건축은 같은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신 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도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자세히 언급하고, 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하는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다(6:20-7:1). 제사장이신 주님은 또한 왕이시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그분께서 또한 제사장이시라는 암시를 읽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목양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또 그분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셨다(마 2:6, 20:28). 이것들은 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일면을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제사장의 교통의 방면과 왕의 권위의 방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어린양이 있고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 보내실 때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좌 아래로 이끄는 일도 하셨다. 그분은 한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교통을 주셨고, 다른 한 면에서는 사람들을 보좌의 권위로 이끄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바로 이것을 보여 주는 한 폭의 그림이다.

사실상 성막이 시나이 산(시내 산) 아래에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그림을 볼 수 있었다. 성막의 원칙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시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었다. 더욱이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가져오셨다. 성막이 건축된 결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교통과 보좌의 권위를 얻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뿐 아니라 함께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건축할 때에, 그곳에는 이미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있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였을 때, 그것 또한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었다. 또 에스겔서 47장에서 신언자 에스겔은 한 줄기의 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와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는(9, 12절) 것을 보았다. 이것은 더욱 분명한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다.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성막의 그림에서 최종적인 새 예루살렘의 그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림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되셔서 보좌의 흐름을 사람들 안으로 흐르게 하시고, 사람들을 함께 건축하여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느니라 묘사한다는 것이다.

### 구속받은 사람들도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직분을 가지고 있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의 두 방면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할 뿐 아니라, 구속받은 우리도 이 두 방면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주님께 나온, 주님의



로 건축된 사람들인 우리가 바로 왕들이라는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계시한다. 왕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왕의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있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우리에게 생명의 교통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땅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인 우리도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방면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건축의 필요에 부합될 수 있다.

### 영이 해방되도록 자신을 열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교통의 방면이 권위의 방면과 균형 잡혀야 한다는 것을 보았으므로, 실행에 있어서 우리는 더 많이 자신을 열고 자신의 영을 해방하여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열어 영을 해방하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기도이다. 당신이 자신을 열고 기도한다면 즉시 영이 해방되어 다른 사람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모든 성도들이 집회 중에 이렇게 자신을 열고 기도하며 영을 해방한다면, 당신은 즉시 생명의 생수가 집회 가운데 흐르고 집회 전체가 완전히 새 예루살렘의 광경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을 열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제목으로 해야 하는지를 물을 것이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영을 열고 영을 해방하여 교통하는 것을 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두가 함께 모일 때에 이 내용을 주제로 삼아 모두가 주님께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영을 해방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영이 섞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당신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참되게 당신의 영을 열고 당신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단지 입만 열고 당신 안에 있는 영은 단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당신의 영을 해방해야 한다. 만일 당신의 영이 해방된다면, 설령 중요하지 않은 제목이라 할지라도 아주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몇 명의 형제가 함께 기도할 때에 별다른 특별한 제목이 없을지라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제목이므로, 즉시 영을 열어 “주님,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해 주셔서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집회 가운데서 당신 자신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열게 하시고 영이 단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셔서,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막힘없이 운행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처럼 이러한 제목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의 영이 열린다면 어떤 것도 제목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제목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제목이 될 수 있다. 건축은 가장 큰 제목이다.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당신은 주님께 “주님, 저는 건축되기 원하고 교회도 건축되기 원합니다. 저는 건축 가운데 뭇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비추어 주셔서 저의 어떤 부분이 건축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보여 주소서. 주님, 저를 위하여 그 부분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손 안에서 파쇄되고 처리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목이다. 그러므로 제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전적으로 당신의 영을 여는 것에 달려 있다. 매번 당신이 성도들과 함께할 때에 늘 자신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여는 것에 관해 언급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직언을 하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여는 것의 참된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열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을 해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매번 우리가 함께 모여 집회할 때,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으로 흐르시도록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통과하여 흘러 나가시도록 해야 한다. 만일 모든 형제자매가 집회 중에 자신을 열어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흐르고 통과하시도록 한다면, 우리의 집회는 틀림없이 공급으로 가득할 것이다.

과거 우리가 가진 어려움은 영을 열지 않는 것이었다. 집회 가운데 모든 이의 영이 다 닫혀 있었다. 메시지를 전하는 집회에서 형제자매들이 듣기만 하려고 마음먹고 영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도 집회나 떡 떤 집회에서도 모든 사람의 영이 닫혀 있었다. 우리의 선호는 독립적인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거나 그들로부터 은혜가 될 만한 것을 받으려고만 한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향해 열어야 한다는 관념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중에 모든 이의 영이 닫혀 있고 생명의 흐름이 끊겨서 곳곳으로 흐를 수 없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집회에서 영적인 양식이 부족하고 생수도 부족하여, 만족을 얻지 못했고 적셔지지도 못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하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느낌을 갖게 된다.

교회의 집회가 이처럼 비정상적인 모습이 된 이유는 생명의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 만병의 원인인 것과 같다. 현재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막힌 것을 뚫어 '혈액 순환'이 원활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만일 이 생명수의 강이 교회 안에서 막힘없이 흐른다면, 교회에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생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길도 있게 되며, 이 물이 흐를 때 금과 진주와 보석이 산출되어 최종적인 결과인 하나님의 건축이 완성된다. *(제사장 직분과 하나님의 건축, 41-54쪽)*